

일본 공영방송 드라마 콘텐츠의 공공성 분석

-NHK TV 아침드라마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ontents of Serial Drama of Japanese Public Broadcasting

-Centered on NHK Morning Dramas-

윤희일

경향신문 편집국

Hee-III Yun(yhill@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아침드라마’ 등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해가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연구결과 NHK의 드라마 콘텐츠는 일본의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편성의 규정에 따라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과거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육성 및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의 드라마는 일본 사람들이 간직해온 가치관은 물론 전통문화와 직업정신까지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방송을 통해 전통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NHK는 또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공영방송인 NHK는 아침드라마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드라마의 방송시기, 방송기간, 방송시간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시청자와의 공적 약속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공영방송 | 드라마 | 내용분석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how NHK, a Japanese public broadcasting company, has promoted the public interest through the contents of its serial dramas including "morning drama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NHK has made utmost efforts to promote public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ing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Japanese Broadcasting Art.

The study shows that NHK has adopted policies to protect transitional cultures of the past and to promote new cultures through drama contents.

NHK has shown its intention to protect traditional cultures by broadcasting completely not only the values that Japanese people have upheld but also traditional cultures and people's professional spirits of Japan.

The study also shows that NHK makes efforts to contribute to community development with the drama contents.

It appears that NHK attaches a great importance on its public promise with viewers by early fixing and well observing the broadcasting season, period, and time of morning dramas in an efforts to promote their public interest.

■ keyword : | Public Broadcasting | Dramas | Contents Analysis |

I. 서론

한국 방송계에 이른바 ‘막장드라마’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극심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국들이 비윤리적 애정관계, 왜곡된 가족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폭력, 거친 대사, 욕설, 황금만능주의 등으로 가득 찬 드라마를 마구잡이로 제작, 편성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경쟁에는 민영방송은 물론 공영방송까지 가세해 전파의 공공성을 해치는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어도 공영방송 만이라도 공공성이 강한 드라마, 모든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드라마를 방송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된 드라마의 좋은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시청률을 중심으로 제작을 하다보면 공공성이 저하되는 현실 속에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재미’라는 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세계의 방송을 사실상 이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하겠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일본 방송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교양 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 분야에서 공영방송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NHK는 특히 드라마 분야에서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NHK가 1961년부터 시작한 아침드라마(원제 NHK 朝ドラー連續テレビ小説)는 일본의 공영방송 드라마 콘텐츠를 대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NHK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콘텐츠인 아침드라마의 내용과 편성전략, 제작방향 등을 상세하게 분석, 공영방송 드라마의 바람직한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드라마 콘텐츠의 특성과 높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이른바 ‘막장드라마’ 논란의 핵심에 있는 국내 공영방송 업계에 바람직한 드라마 콘텐츠 생산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영방송과 방송콘텐츠에 대한 최근의 연구경향

1.1 공영방송 및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한 연구

공영방송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및 역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강형철[1]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대가로 사영방송(민영방송)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진아[2] 역시 공영방송은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미숙[3]은 대중오락과 뉴스 프로그램의 장르를 중심으로 방송의 편성전략을 검토한 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대중 다수의 관심을 획득하기 위한 편성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현, 김유화 등[4]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서 수많은 미디어와 채널이 늘어나고 있고, 방송의 상업성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새로운 방향의 편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박성명[5]은 국내 공영방송의 장수프로그램이 어떤 요인으로 장수했는지를 수용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1.2 일본 방송 콘텐츠 및 편성전략에 관한 연구경향

최근에는 일본 방송의 장르별 또는 개별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홍지아[6]는 일본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생산물인 TV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의 학원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드라마 콘텐츠에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과 권위에 대한 저항 등의 특성을 도출해 냈다. 강명구, 김수아, 서주희[7]등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4개 사회에서 TV 드라마가 가족관계를 어떻게 재현했는가를 분석하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심미선[8]은 일본 NHK 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는 방송환경에서 지상파방

송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편성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성전략은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를 실시했다.

1.3 방송 콘텐츠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경향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왜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영, 이정교, 김태용[9]등은 지상파 텔레비전 4개 채널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양과 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성 수준이 공영방송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폭력의 양이 전반적으로 드라마 등 오락 장르에서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근태, 하승태, 서영남, 조의현[10]등은 국내에서 방영된 지상파 방송3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폭력적 장면의 빈도와 강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4 방송 콘텐츠연구에 적용되는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경향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 콘텐츠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 통계처리에 의한 양적 분석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내용분석 등의 질적 분석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부정남[11]은 내용분석 연구가 그동안 밟아온 역사적 흐름을 소개한 뒤 질적 분석에 의한 내용분석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그는 통계처리에 의한 양적 분석은 특정사안에 대한 메시지의 전체적인 관심은 설명해주지만 전달자의 참 의도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태[12]는 미디어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내용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 일본의 공영방송 NHK

2.1 NHK의 공공성

NHK는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일본의 공영방송이

다. 이 방송국은 지상파TV방송을 중심으로 라디오방송, 위성방송, 국제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갖고 있다. NHK는 영국의 BBC나 우리나라의 KBS 등과는 그 성격이나 설립형태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NHK는 그 설립 목적을 ‘공공의 복지’에 두고 있다. 일본의 방송법 제7조는 ‘일본 전국에 걸쳐 누구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풍성하고도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낸다’고 NHK의 방송목적을 밝히고 있다. NHK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일종의 ‘특수법인’이다.

NHK는 ‘공영방송의 사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국민의 문화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NHK는 일본의 고유문화를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이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NHK는 이밖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방송법 제3조는 방송이 공공의 안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교양, 교육, 보도, 오락 프로그램의 조화를 유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 제44조는 공영방송인 NHK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NHK가 풍부하고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내보냄으로써 공중의 요망에 부응하고 동시에 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HK는 전국은 물론 지방의 발전을 위한 방송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 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육성·보급하는데 NHK가 기여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NHK는 이런 법률 조항에 따라 ‘일본방송 협회 국내 프로그램 기준’을 정해 프로그램 편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2.2 NHK 및 NHK 아침드라마의 개요[13]

표 1. 일본 공영방송 NHK의 개요

항목	내용
사명	일본방송협회(日本放送協会)
설립	1926년 8월 20일 (TV방송개시 1953년 2월 1일)
지역방송국 수	54개(1개 본부, 53개 지역방송국)
매출액(2007년)	6847억 엔
종업원	11,249명

표 2. NHK 아침드라마의 개요

항목	내용
방송 개시 연도	1961년 3월
과거 방송된 드라마 (2009.7.3 현재 방송중인 드라마 포함)	80
시리즈당 방송 기간	6개월
회당 방송 시간	15분

표 3. NHK 아침드라마의 채널별 방송시간

채널	방송시간
지상파 종합	월~토요일 오전 8시15분~8시30분
위성방송	BShi 월~토요일 오전 7시30분~7시45분
	BS2 월~토요일 오전 7시45분~8시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제작·편성,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콘텐츠의 공공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공영방송으로 한정한다. 이는 공영방송 드라마 콘텐츠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 또 방송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는 드라마 분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뉴스, 교양 등 다른 콘텐츠 분야는 물론 같은 오락분야라도 베라이어티, 코미디 등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드라마 콘텐츠 중에서도 NHK가 유일하게 매일 방송을 하는 드라마로써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아침드라마'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공공성의 내용은 크게 'NHK 아침드라마 콘텐츠 자체에 담겨 있는 공공성'과 'NHK 아침드라마의 편성정책에 담겨 있는 공공성' 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공성의 범위는 NHK의 공공성을 규정한 일본 방송법 제44조의 NHK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 규정을 바탕으로 다음 3가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1. 전통문화 보전에의 기여 여부

2. 지역발전에의 기여 여부

3. 공공성 실현을 위한 편성방침 준수 여부

공공성의 범위를 이처럼 일본의 방송법 조항을 토대로 3가지 항목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갖는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특별한 분류 기준이 없어 연구의 편의에 따라 그 범위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문화보전에의 기여 여부'와 '지역발전에의 기여 여부'를 분석한 뒤 이 결과를 NHK 아침드라마 콘텐츠 자체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또 '공공성 실현을 위한 편성방침준수 여부'를 분석, 드라마 편성정책상의 공공성 여부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1.> 일본NHK-TV의 드라마 콘텐츠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는가?

<연구문제2.> 일본NHK-TV의 드라마 콘텐츠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

<연구문제3.> 일본NHK-TV는 드라마 콘텐츠를 편성함에 있어 공공성 실현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편성방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2.1 내용분석

본 연구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질적 분석에 유용한 연구방법인 '내용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소설, 시, 수필, 회곡 등 문학작품은 물론 드라마

와 영화 등의 콘텐츠를 분석함에 있어서 내용분석 등의 질적 분석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14].

학자들은 내용분석 연구가 콘텐츠 등이 함유하고 있는 메시지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는데 유용하며 미디어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내용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2 분석유목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을 분석, 연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체계성 및 일반성을 요건으로 하는 분류기준과 유목이 설정되어야 한다. 차례근은 내용분석에 사용되는 유목의 분류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15]. 그는 분석유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분석유목들이 연구문제나 연구목적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oseph R. Dominick 와 Millard Pearce도 텔레비전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기술하는 유목을 찾는 작업은 사회과학자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16].

일본 공영방송 드라마 콘텐츠의 공공성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분석유목을 설정하고 각 유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방송은 공적 책무가 필연적인 의무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방정배, 김재철 등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적 가치)을 문화적·창조적 가치, 사회적·공동체적 가치, 민주적 가치, 교육적 가치, 글로벌 가치 등으로 나눠 검토한 바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방정배 등이 검토한 공영방송의 다양한 공공성 영역 중에서 일본의 방송법이 정한 공공성의 요건에 부합되는 ‘전통문화보존’(문화적 가치의 실현), ‘지역발전기여’(사회적·공동체적 가치), ‘편성방침준수’(민주적 가치) 등 3가지 영역만을 분석유목으로 설정, 분석하고자 한다.

3가지 분석유목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보존이라는 유목은 ‘한국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와 예술 등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에 대한 보존 및 계승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인공과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 혹은 드라마의 배경이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전통문화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콘텐츠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2. 지역발전기여라는 유목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의 발전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와 지방 등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힘을 쓰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의 촬영지 또는 배경무대를 지역으로 함으로써 ‘수도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공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3. 편성방침준수라는 유목은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설정해 놓은 편성방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드라마 콘텐츠를 편성함에 있어서 미리 정해 놓은 연간 방송 시리즈 수, 방송의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의 편성방침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 방송편성 정책의 공공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2.3 내용분석의 절차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분석 대상 콘텐츠(드라마)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분석의 대상이 된 콘텐츠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방송된 NHK 아침드라마 20편이다. 이는 방송의 환경이나 경향이 유사한 최근 10년 동안의 콘텐츠를 선정,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1999년 이후 최근까지 방송된 NHK 아침드라마 콘텐츠 20편(방송되고 있는 1편 포함)의 DVD를 입수, 방송 내용을 실제로 시청하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용분석은 NHK 아침드라마의 전통문화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드라마의 주 무대가 일본 전통문화와 관련성이 있거나 주인공이나 주요 등장인물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연구나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있다’와 ‘없다’로 코딩화한 뒤 이를 통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있다’로 코딩되는 경우는 ‘전통문화와 관련이 높은 드라마’로, ‘없다’로 코딩되는 경우는 ‘전통문화와 관련성이 낮은 드라마’로 구분, 통계처리 했다. 코딩 작업은 별도로 교육한 코더들에 의해 진행됐다. 본 연구는 일본 방송 콘텐츠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코더가 필요했다. 이 조건에 적합한 50대 여성 1명, 4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 등 3명을 코더로 최종 선정했다. 먼저 코더들을 훈련시킨 뒤 코더간의 신뢰도 테스트를 실시했다. 코더간의 신뢰도는 각 드라마에 대한 코더간의 일치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코더간의 구체적인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를 활용했다[18].

그 결과 코더간의 신뢰도(일치도)는 85%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여기에서 신뢰도를 85%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키사르잔[19]이 코더간의 상호신뢰도의 최소치를 85%로 제시한데 근거한 것이다.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에 대한 분석 역시 1999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방송된 아침드라마 콘텐츠 20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드라마 콘텐츠는 물론 NHK가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공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1>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1>은 ‘일본NHK-TV의 드라마 콘텐츠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는가?’였다.

이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방송된 NHK아침드라마 2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20편의 드라마 중 19편(95%)이 일본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는 NHK 아침드라마 수

	횟수	%
계	20	100
전통문화와의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	19	95
전통문화와의 관련성이 낮은 콘텐츠	1	5

이들 드라마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하고 있거나, 적어도 전통문화가 소재 또는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주인공이 직접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나서는 경우와 주인공의 가정 또는 지역사회가 전통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NHK 아침드라마가 콘텐츠에 포함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내용을 보여준다.

화과자, 간장 등 음식은 물론 축제, 어업, 음악, 무용, 온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를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NHK 아침드라마가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공공성에 큰 비중을 두고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최근 10년 동안 방송된 NHK아침드라마에 포함된 전통문화의 내용

드라마	연도	일본 전통문화 관련 내용
아스카(あすか)	1999년 하반기	일본 화과자(和菓子)
나의 푸른 하늘 (私の青空)	2000년 상반기	일본 전통 어업
오도리(オードリー)	2000년 하반기	일본 전통 여관
츄라상(ちゅらさん)	2001년 상반기	일본 젖통악기(오키나와 자미센, 沖縄三味線)
혼마몽(ほんまもん)	2001년 하반기	일본의 맛
사쿠라(さくら)	2002년 상반기	일본의 전통 양초
만탱(まんてん)	2002년 하반기	없음
고코로(こころ)	2003년 상반기	일본 전통 장어요리, 불꽃놀이(花火)
데루데루가족 (てるてる家族)	2003년 하반기	일본 전통 가곡 다카리즈카(宝塚)
덴카(天花)	2004년 상반기	일본 전통 쌀 농업
와카바(わかば)	2004년 하반기	일본 전통 정원사
화이토(ファイト)	2005년 상반기	일본 전통 온천
바람의 하루카 (風のハルカ)	2005년 하반기	일본 전통 온천

순정기라리(純情きらり)	2006년 상반기	일본의 전통 간장
이모타코난킹 (芋たこなんきん)	2006년 하반기	일본의 전통거리와 인정
돈도하레 (どんど晴れ)	2007년 상반기	일본 전통 여관
치리토데침(ちりとてちん)	2007년 하반기	일본의 전통예술 라쿠고(落語)
히토미(瞳)	2008년 상반기	일본의 전통축제(祭り)
단당(だんだん)	2008년 하반기	일본 교토의 전통무용, 전통 어업
츠바사(つばさ)	2009년 상반기	일본 화과자

각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늘 ‘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한다.

어떤 주인공은 일본의 전통요리가 갖고 있는 맛을 지키기 위해 온 인생을 바치고, 어떤 주인공은 일본의 전통과자가 가지고 있는 맛과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을 한다. 또 어떤 등장인물은 일본 고유의 불꽃놀이용 화약 제조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NHK의 아침드라마에는 일본 사람들이 간직해온 가치관은 물론 전통문화와 직업정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때문에 NHK의 아침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일본의 전통문화와 그것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신을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결국 공영방송인 NHK는 아침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육성·보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2>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2>는 ‘일본NHK-TV의 드라마 콘텐츠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였다.

이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1999년 이후 방송된 NHK 아침 드라마 20편의 배경 및 촬영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NHK의 아침드라마는 전국 각 지역을 배경으로 촬영 및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도인 도쿄만을 배경으로 촬영 및 제작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의 배경(촬영지 포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인 도쿄만을 배경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1편

(5%)에 불과했다.

전체 콘텐츠의 95%인 19편은 수도 도쿄 이외의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NHK 아침드라마의 배경(중앙 및 지역)별 제작 편수

	편수	%
계	20	100
도쿄를 배경으로 제작된 콘텐츠	1	5
도쿄와 지역을 공동 배경으로 제작된 콘텐츠	7	35
지역만을 배경으로 제작된 콘텐츠	12	60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콘텐츠의 절반이 넘는 12편(60%)은 도쿄 이외의 지역만을 배경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또 7편(35%)은 도쿄와 다른 지역을 공동 배경으로 해서 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지역을 중시하는 NHK의 제작 및 편성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2009년 상반기에 방송된 ‘츠바사(つばさ)’가 일본 사이타마(埼玉)현을 배경으로 제작됨으로써 일본 전국의 47개 도도부현(1都1道2府43縣)에서 100% NHK 아침드라마가 제작되는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2001년 상반기에 방송된 ‘쥬라상(ちゅらさん)’은 오키나와(沖繩) 출신의 한 여성의 대도시인 도쿄에 나와 간호사가 된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였다. 일본 속의 ‘남국’ 오키나와와 도쿄를 오가며 제작한 이 드라마가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특산품 등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후 오키나와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기도 했다.

전국에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NHK가 아침드라마를 지역을 배경으로 제작, 방송할 경우 드라마의 촬영무대가 된 곳은 방송 당시는 물론 방송 이후에도 유명 관광지가 된다. 관련 관광상품이나 요리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경제효과, 지역부흥의 효과를 노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아침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NHK가 도쿄 등 중앙 일국 중심의 제작, 편성에서 벗어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의 보전

이라는 공공성을 최대한 살린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표 7. NHK 아침드라마의 방송국(도쿄 및 오사카)별 제작편수

	편수	%
계	20	100
도쿄본부 제작 콘텐츠	10	50
오사카방송국 제작 콘텐츠	10	50

NHK는 또 아침드라마를 도쿄본부 이외의 지방방송국에서도 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1999년 이후 2009년 현재까지 제작된 20편의 분석대상 콘텐츠 중 50%인 10편이 오사카방송국에서 제작되었다.

NHK는 1974년까지 대부분의 아침드라마 콘텐츠를 도쿄본부에서 제작했지만 1975년 그 이후에는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방송국(지역거점국)에서도 제작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2개 시리즈로 방송이 되는 콘텐츠를 도쿄본부와 오사카방송국이 교대로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반기 작품은 도쿄본부에서, 하반기 작품은 오사카방송국에서 제작함으로써 본사 이외에 콘텐츠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방송국의 생산능력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다.

NHK는 도쿄본부의 경우 도쿄 일대와 홋카이도(北海道), 야마가타(山形) 등 도쿄의 동북쪽 지방을 무대로 드라마를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사카 방송국의 경우는 오사카 일대는 물론 시코쿠(四國), 큐슈(九州) 등 오사카 이남 지역을 배경으로 한 아침드라마 제작에 임하고 있다.

3. <연구문제3>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3은 ‘일본NHK-TV는 드라마 콘텐츠를 편성함에 있어 공공성 실현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편성방침을 준수하고 있는가?’였다.

NHK는 시청자들이 드라마 프로그램의 편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방송시리즈 수와 방송개시 및 종료 시기를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NHK의 편성정책 중 하나다.

NHK는 아침드라마의 경우 ‘연간 2개 시리즈를 방송한다’는 원칙과 ‘상반기 시리즈는 4월에 시작하고, 하반기 시리즈는 10월에 시작한다.’는 편성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NHK는 방송 초기부터 1974년까지는 1년에 1개 시리즈만 방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가, 1975년부터는 1년에 2개 시리즈를 방송하는 것으로 편성방침을 바꿨다.

이런 편성방침을 정하는 이유는 시청률 등에 따라 드라마를 멋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장치인 것이다.

NHK의 이런 편성방침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1999년 이후 방송된 아침드라마 20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편의 드라마가 방송되는 동안 방송국이 정한 ‘1년 2개 시리즈 방송’이라는 편성방침은 단 한 차례도 깨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NHK가 방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정해놓은 편성방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NHK 아침드라마의 연간 2시리즈 편성 방침 준수여부

	편수	%
계	20	100
연간 2시리즈 방침을 지킨 콘텐츠	20	100
연간 2시리즈 방침을 지키지 않은 콘텐츠	0	0

NHK는 또 아침드라마를 편성함에 있어 철저한 ‘정기편성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 또한 조기종영, 고무줄 편성 등에 의한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방송의 공공성 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NHK는 원칙적으로 상반기 시리즈는 매년 4월~9월, 하반기 시리즈는 매년 10월~이듬해 3월에 각각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99년 이후 방송된 NHK 아침드라마 콘텐츠 20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송개시 및 종료 시기를 지키지 않은 드라마는 단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NHK 아침드라마의 방송 개시 및 종료 시기

	점수	%
계	20	100
방송 개시 및 종료일을 지킨 콘텐츠	20	100
방송 개시 및 종료일 지키지 않은 콘텐츠	0	0

20편 모두 상반기 시리즈는 4월~9월에, 하반기 시리즈는 10월~이듬해 3월일에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는 NHK가 당초 정한 편성원칙을 단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NHK 아침드라마에서는 인기(시청률)에 편승한 '늘리기 편성'이나 인기가 없을 경우 취하는 '조기종영'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NHK 아침드라마의 제작 및 편성시스템이 철저하게 매뉴얼화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방영개시 시기는 물론 종영 시기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한 번 시작되면 그 드라마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언제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될 것인지 등을 좀처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인기도(시청률)에 따라 조기 종영될 수도 있고, 연장 방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NHK의 아침드라마는 방송 일정이 갑자기 바뀐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이는 시청자들과의 편성에 대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방송국의 방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HK의 이런 시스템은 모든 아침드라마 콘텐츠를 사전에 기획,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NHK 아침드라마는 방송 1년 전에 이듬해 방송할 콘텐츠의 내용은 물론 주요 등장인물까지 결정한 뒤 바로 사전제작에 들어간다.

V. 결론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아침드라마'로 대변되는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NHK의 드라마 콘텐츠는 일본의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편성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높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NHK는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전통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방송된 NHK아침드라마 20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95%인 19편이 일본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영방송인 NHK가 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전통문화를 기키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NHK의 드라마 콘텐츠는 대부분 전통문화를 소재 또는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직접적인 주제로 내거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드라마에서 다루는 전통문화의 장르도 음식, 축제, 예술, 산업, 휴양 등 다양했다.

이는 상당수 콘텐츠가 시류나 유행에 민감하고 극단적인 도시문화, 현대문화만을 강조하면서 전통적 가치관까지 거부하기까지 하는 한국 공영방송의 드라마와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NHK의 아침드라마는 일본 사람들이 간직해온 가치관은 물론 전통문화와 직업정식까지 고스란히 담아냄으로써 방송을 통해 전통문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NHK는 또 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공공성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1999년 이후 방송된 NHK 아침드라마 20편의 배경 및 촬영지를 분석한 결과 수도인 도쿄만을 배경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1편(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도쿄와 지방, 또는 지방만을 배경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이는 지역을 중시하는 NHK의 제작 및 편성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본 전국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NHK가 아침드라마를 지역을 배경으로 제작, 방송할 경우 드라

마의 촬영무대가 된 곳은 방송 당시는 물론 방송 이후에도 유명 관광지가 된다. 관련 관광 상품이나 요리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도쿄 등 중앙 일대 중심의 제작, 편성방식에서 벗어나려는 NHK의 이런 노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방송 본연의 역할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드라마 콘텐츠가 수도인 서울 1극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공영방송인 NHK는 드라마 콘텐츠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편성방침을 갖고 있다. NHK는 아침드라마의 방송시기, 방송기간, 방송시간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뒤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시청률 등을 이유로 한 조기종영이나 연장방영 등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시청자들과의 편성에 대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NHK의 이런 편성시스템은 모든 아침드라마 콘텐츠를 사전에 기획,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도 만들어 주고 있다. NHK 아침드라마는 방송 1년 전에 이듬해 방송할 콘텐츠의 내용은 물론 주요 등장인물까지 결정한 뒤 바로 사전제작에 들어간다.

2.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콘텐츠의 내용은 물론 프로그램 편성정책에서도 철저하게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드라마 콘텐츠를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영방송 드라마 콘텐츠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높은 공공성은 한국의 방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NHK의 드라마 콘텐츠는 공영방송의 경우 뉴스, 교양, 정보프로그램은 물론 오락프로그램인 드라마 까지도 철저하게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청률을 의식, 홍미와 오락성에 비중을 두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향이 짙은 한국의 공영방송 업계

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NHK의 아침드라마 콘텐츠는 공영방송의 드라마 콘텐츠는 전통문화의 보전이나 지역발전에의 기여 등 보편적인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공영방송에서 방송되는 상당수가 드라마가 이른바 '막장드라마'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문화를 파괴한 채 홍미위주로 제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방송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 NHK의 드라마편성원칙은 시청률에 따라 조기종영을 하거나 늘리기 편성을 함으로써 '고무줄 편성'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한국 공영방송의 편성정책에 일침을 놓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공영방송의 드라마를 공공성이라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드물었다는 측면에서 학계는 물론 방송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는 방송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공공성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일본의 방송법 규정과 관련이 있는 3가지의 유목만을 골라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를 가치를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을 꼭넓게 고찰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드라마 이외의 뉴스, 교양, 버라이어티 등 다른 장류의 콘텐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NHK 아침드라마의 높은 공공성이 시청률로 대변되는 시청자들의 반응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NHK 아침드라마는 1961년 방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 까지 같은 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5개 민영방송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기록한 이런

결과는 공영방송의 드라마는 공공성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시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공영방송 드라마의 공공성과 시청률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강형철, “공영방송의 새로운 정체성”, *방송연구*, 제64호, pp.7-33, 2007.
- [2] 배진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방송연구*, 제64호, pp.74-101, 2007.
- [3] 백미숙, “시청자와 공영방송의 편성 전략 - 대중 오락과 뉴스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제64호, pp.102-130, 2007
- [4] 변동현, 김유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에 관한 연구-편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0-4호, pp.80-120, 2006.
- [5] 박성명, “방송 프로그램 시청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논문집*, pp.206-220, 2000.
- [6] 홍지아, “일본 학원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한국 방송학보*, 제20-1호, pp.445-477, 2006.
- [7] 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동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가족과 가족관계-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사례 비교”,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6호, pp.25-51, 2008.
- [8] 심미선, “지상파방송의 편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7-4호, pp.37-75, 2003.
- [9] 민영, 이정교, 김태용, “주시청시간대 지상파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1-5호, pp.84-126, 2007.
- [10] 한근태, 하승태, 서영남, 조의현, “지상파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1-1호, pp.311-351, 2007.
- [11] 부정남, “내용분석의 발전과정”, *신문학보*, 제17호, pp.125-131, 1984.
- [12] 김성태,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권, 제2호, pp.39-66, 2005.
- [13] 윤희일, *디지털시대의 일본방송,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
- [14] 부정남, “내용분석의 발전과정”, *신문학보*, 제17호, pp.125-131, 1984.
- [15]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1979.
- [16] Joseph R. Dominick and M. C. Pearce, “Trends in Network prime-Time Programming, 1953-74,” *Journal of communication*, Winter, p.71, 1976.
- [17] 방정배, 김재철,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와 역할에 관한 의식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0-1호, pp.96-138, 2006.
- [18]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1979.
- [19] H. Kassarjian, “Content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4, No.2, pp.8-18, 1977.

저 자 소 개

윤희일(Hee-Ill Yun)

정회원



- 1990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2001년 8월 : 한남대학교 언론홍보학과(문학석사)
- 2007년 8월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3~2004 : 일본 조치대(上智大) 대학원 신문학과 객원연구원
- 1991년 2월 ~ 현재 : 경향신문사 편집국 전국부 기자 (차장)

<관심분야> 신문콘텐츠, 방송콘텐츠